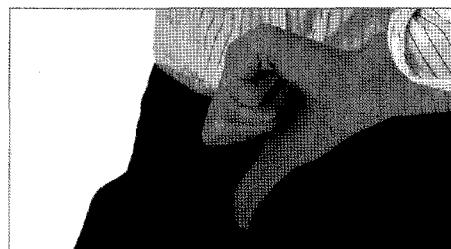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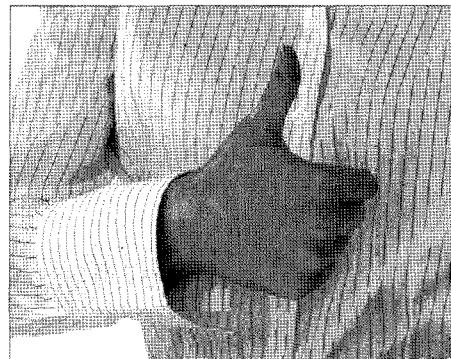


누구나 하는 성공<?> 아무나 못하는 성공<!>

성공은 재능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방향의 “관리”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면서 자신의 본질보다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신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게 되죠.

결국 “남보다”에서 “남만큼” 정도로 기대치가 낮춰지게 됩니다.

거북이를 앞서 갔던 토끼가 갑자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저렇게 느린 거북이를 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뛰어야 할 목적을 잊어버렸죠. 결국 고민하다 잠이 들고 더 깊은 잠에 자신을 관대하게 둔 결과 그 느린 거북이에게도 패배한 수치스러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앞만 보고 갔습니다. 영금·영금…….

그러나 거북이의 성실함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토끼와 함께 경주에 임했지만 그의 다른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이에게 목표를 둔 토끼와는 달리 거북이는 골인점을 명확히 두고 성실하게 갔다는 점입니다.

그거 꼭 성공해야 합니까? 갑자기 주변에 어떤 분이 슬슬 웃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의 의도에는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 토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뛸 필요 있나? 라고요.

첫 번째, 성공은 경영의 대상입니다

누구나 경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5년, 10년, 20년 후는 경영이 어렵지만.

그러나 다음주? 아니 내일?은 경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일 어떤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객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여자친구를 만나 용기를 갖고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갖길 원합니까?

설마 위의 일들이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치는 않으시겠지요?

절대로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은 선택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계획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들어야 합니다. 딜이리를 보고 당당히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영의 범위입니다.

약속이 잘 안 잡힐 수도, 여자친구와 연락이 안 될 수도, 자녀가 너무 바빠 아버지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영 외 변수입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변수까지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변수와 빗겨간 결과를 이유로 전화까지 들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위한 선택을 지금 하셨습니까? 현재의 그 선택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연결이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어떤 선택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음식점에 친구들과 갔습니다. 뭘 먹을까? 그러나 그 친구는 한마디로 끊습니다.

“난 아무거나” 결국 그는 아무거나 주어져도 아무거나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자신을 선택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결과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 주도의 대상입니다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문제가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운이 잘 안 따라준 것입니다. 외부경기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럴까요?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직업을 찾아 다닙니다.

결국 제대로 집중해서 파보지도 못하고 파다만 우물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 맥없이 끌려가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바로 실패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젠 과감히 환경의 가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문제의 탓보다는 내적인 가능성을 찾아나서야 합니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공하는데 지금의 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에 지금의 이런 경험과 위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감동의 클라이막스와 극적인 해피엔딩을 위해 바로 그 좋지 않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타이밍입니다

성공에는 분명히 약간의 운(運)이 따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관건은 그 운이 나를 선택했는가? 내가 그 운을 만들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위에서 말한 경영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통제 가능한 것들의 범위 안에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도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혀 무관한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1%의 가능성(運)이라도 99%의 노력과 준비로 100%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은 바로 내부와 외부의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순간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것입니다.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가볍게 운(運)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오는 운은 아무에게도 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단히 지루하리만큼 반복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내부 역량과 외부의 기회 접점을 살리는 “통찰력”이 한번의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경영, 환경, 시간의 역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김형환

한국경영리더십컨설팅 대표
한국등록협회컨설팅,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경영전략기획, 리더십 실무, 글로벌마케팅, 해외현지화 경영전략 등 강의